

문화칼럼

“예술인이여 깨어 분개하라”

故 구본주 작가의 예술혼을 살리자



이흥우
솔로무문학회 회원

다. 한마디로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을 경질할 능력 있는 예술가며 시인이다.

37살의 젊은 그가 불의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어언 2년째이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그의 흔이 담긴 작품들이 어찌 50년, 100년, 1000년이 고이 간직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또다른 시간과 생각으로 보여 질 것이 아닌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민예총의 이사로 한국예총의 이사로 많은 창작활동과 작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그의 사후처리가 깨끗이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측과 보상제로 인해 우리 예술인들 전체가 무직자에 속하는 도시일용 근로자로 취급 받고 있으며 학생과 주부들의 일당에 준하는 보상을 하려한다.

민예총 과 한국예총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 강구에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예술인들의 위상강화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처해야 하며 크게 ! 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곧 구본주의 예술가로서의 보상과도 직접 된 것이기도 하지만 굳이 그 가치를 따진다면 예술인들은 고급 인력으로 그의 가치 환산을 할 수 없는 무한경지에 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보혈회사에서 말하는 무직자 처치의 좌천을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야 할 일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삼성그룹의 정치성 연계비리와 고급 검사출신들의 영입으로 인해 연일 보도 되고 있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그의 흔이 담긴 작품들이 어찌 50년, 100년, 1000년이 고이 간직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또다른 시간과 생각으로 보여 질 것이 아닌가.

고 구본주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가 운영 되고있는데 요즘 삼성화재를 상대로 일인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삼성화재 정문에는 연일 시위하는 예술가로 인해 삼성화재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참으로 다행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22일에는 현직 국회의원 14명이 삼성화재와 삼성그룹 이견 회 회장에 예술인들의 품격 향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삼성측은 묵묵부답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기업으로서 쟁쟁한 포라 아니 할 수 없다. 공개서한을 보낸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일동 강혜숙, 김재운, 노용래, 민병두, 이미경, 이재우, 이계진, 이경숙, 이광철, 안민식, 우상호, 윤원호, 정경래, 천영세(이상 14인 가나다 順)

삼성화재는 유족들에게 공개서한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다소 유족의 상처를 풀어주고 구본주는 포천시 소흘읍 무봉

리에서 태어나 송우초등학교와 동남중 고교를 졸업하고 홍익대 조소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의 후배로서 포천의 예술은 물론 전국의 예술을 평정하고 이끌어 나갈 큰 밑거름이 아닐 수 없었으며 포천이 낳은 동남 이혜조 선생이 세상을 밝혀주는 햇빛이었다면 그는 그 햇빛을 받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름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예술가라는 것을 부인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어느 누가 감히 겸주지 못 할만한 삶의 밤새가 물신 풍기는 작품들이었으며 지금도 그의 60여평이나 되는 작업장이 무봉리에 있으며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작품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부인과 다섯살 딸아이와 세 살 아들과 함께 2년을 넘기는 삼성화재측과의 법정투쟁으로 인하여 지치고 허탈해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예술인과 포천이 동향인 선 후배들이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동안을 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가 포천의 자랑거리였던 만큼 우리 예술인들이 고 구본주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그의 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의 사상과 작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예술가들은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노력해야 하고 수준 높은 작품구상을 위해 함께 고민 하고 깨어야 할 것이다.

이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조광조의 사후에 그가 보인 행동이었다. 역적으로 사사된 죄인의 시신은 함부로 수습할 수 없어도 불구하고 양평은 조광조의 시신을 홀로 영하고 매장하였던 것이다. 이 때의 기록을 상고해 보면 정암이 사사의 명이 이르자 선생이 손을 잡고 결별을 했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하는 말이 '각자 우리 왕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다.' 고 하였다. 이날은 바람도 매섭고 눈이 많이 내리 사람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었는데 선생은 홀로 적려의 밖에서 종일토록 풍곡하여 울고 몸소 염을 문묘에 배향하고 추수서원, 도봉사원, 심고서원 등에 제향됨.

■양평손(1480년 성종11년~1543년 인종1년)

본관은 제주, 호는 학포. 1510년 조광조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 정언을 거쳐 조광조와 함께 사기독서(賜暇讀書)를 했고 1519년(중종14) 교리로서 재직중 기묘사화가 일어나 자 사직(파면)당했다.

조광조가 능주로 귀양오자 학포는 배소로 찾아와 정암과 더불어 언저내 곤궁한 처지에서라도 도리어 형통함을 잊지는 말자고 서로 권면하였다.

조광조는 능주에 와서 언젠가는 중종이 참소를 물리치고 다시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달만에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뉘니 뉘니 해도 양평손

韓國의 선비정신 · 9

芝蘭之交... 깨끗하고도 밝은 벗 사이의 교제

조광조가 양평손을 마치 지초나 난초의 향기가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 같다고 평한 내용에서 지초와 난초같은 향기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벗 사이에 맑고도 높은 우정을 이르는 말이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조광조(1482년 성종13~1519년 중종14)

본관은 한양, 호는 정암(靜庵). 한헌당 김광필에게 수학,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중직의 화통을 이은 사립파의 영수가 되었다.

1510년 진사가 되고 1515년(중종10)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입시할 때마다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지지주의(至治主義)를 역설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1519년(중종14) 대사헌이 되어서 현량과를 실시하여 30대의 신진 사류를 요직에 안배하는 한편 훈구파를 외척에 몰아내고 정국공신이 너무 많아져서 3/4를 삭혼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자 훈구파의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의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은 후궁들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게하고 대궐 나 무 일에 과일점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별레가 감아 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고 조광조 일당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무고하여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일과 수십명을 제거하는 데 참변이 일어났다. 조광조는 전남 화순군 능주에 유배하였다가 한달만에 사사되었다.

후에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어 문정(文正)의 시호가 내려지고 김광필, 정여창, 이언적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추대되어 조선조에서 처음으로 사현을 문묘에 배향하고 추수서원, 도봉사원, 심고서원 등에 제향됨.

■양평손(1480년 성종11년~1543년 인종1년)

본관은 제주, 호는 학포. 1510년 조광조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 정언을 거쳐 조광조와 함께 사기독서(賜暇讀書)를 했고 1519년(중종14) 교리로서 재직중 기묘사화가 일어나 자 사직(파면)당했다.

조광조가 능주로 귀양오자 학포는 배소로 찾아와 정암과 더불어 언저내 곤궁한 처지에서라도 도리어 형통함을 잊지는 말자고 서로 권면하였다.

조광조는 능주에 와서 언젠가는 중종이 참소를 물리치고 다시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달만에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뉘니 뉘니 해도 양평손

이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조광조의 사후에 그가 보인 행동이었다. 역적으로 사사된 죄인의 시신은 함부로 수습할 수 없어도 불구하고 양평손은 조광조의 시신을 홀로 영하고 매장하였던 것이다. 이 때의 기록을 상고해 보면 정암이 사사의 명이 이르자 선생이 손을 잡고 결별을 했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하는 말이 '각자 우리 왕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다.' 고 하였다. 이날은 바람도 매섭고 눈이 많이 내리 사람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었는데 선생은 홀로 적려의 밖에서 종일토록 풍곡하여 울고 몸소 염을 문묘에 배향하고 추수서원, 도봉사원, 심고서원 등에 제향됨.

양평손이 없었다면 조광조의 시신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 서원도 무덤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양평손이 없었다면 조광조의 시신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 서원도 무덤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양평손이 없었다면 조광조의 시신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 서원도 무덤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유기고

포천의 대중소리를 기다리며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과확적이며 자연친화적으로 두텁고 긴 해 원통에 나무로 된 撞木(당목)으로 정확히 撞擊(당좌)를 맞추어야 종을 제작했을 때 시도 했던 종소리가 날 수 있는 묘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울림이 부드럽고 귀에 거스르지 않고 포근하며 신선한 여운을 멀리멀리 퍼져 들리는 모든를 교화케 하는 신봉력마저 갖고 있으나 그 소리에 젖어있는 이들은 제일 크기는 정서에 감동 없는 가장 바람직한 인성을 갖게 됨이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순리를 거스르지 않은 맑고 부드러운 음향은 산천초목까지도 감화를 주는 영험스러움을 지니고 있음이나 여기 포천은 불행하게도 격전의 요충지여서 주인이 자주 바뀐 역사에서 문화의 안정을 기하기 힘든 곳이라 제대로 된 역사적 문화의식이 자리하지 있지 않아 종소리라야 겨우 텔레비전에서 들려주는 현장감 없는 종소리를 듣는데 전부이다싶어 으니 가슴속에 남아있는 종소리의 정서를 모르는게 당연한데도 추진 위촉에서는 그저 일일유심만 앞세워 신명나게 전진하면 모두가 따라오리라는 기적 없는 허구로 맹목적인 행보를 해 지탄과 박해를 받고 있으나 어찌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예 종에 대한 깊이 있는 시민 계도가 있었으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너무 큰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고 종소리에 대한 인식만 갖추어졌어도 그들은 만들어지는 종은 쇠뿔이 리로 보지 않았을 테고 시기적인 현실은 시승적에 했어야 했으나 생각부족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게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며, 경제적인 문제는 고려해두고 싶지도 않은 투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에베레스트를 만났을 때 당시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자 했다는것도 여러분은 잘 알 것이라 하겠다

격정되는 바는 이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O.O운동XX연대 같은 큰소리 내는 이들의 속내문 제다. 이사회를 위해 시위하는 것은 가장 당연하며 살아있음과 불의에 항거하는 값진 행위이나 첫째는 폭도가 되어서는 안되고 올바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가짐이며 가장 큰 일은 일이 끝나면 원래 자기 자

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위에 군림하여 권좌를 누리기에 남의 지도자가 되면 학덕을 쌓아야 하는데 시위에 앞장서려는 이 사회의 현실을 만드는 이들은 이 나라 장래에 큰 범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우리 포천에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대로 가슴에 정서가 있는 시민은 목소리 큰 곳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작은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더 크게 할 것이며 감언이설과 맞보기식 현실 직시보다는 먼 내일 이땅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내일의 포천을 풍요롭게 하리라는 믿음을 갖기 바라며 나의 견해로는 하루빨리 이런 종소리가 울려 퍼져 첫째로 시민의 마음이 하나되고 둘째로 자라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마음되어 사랑스런 배움을 탐하고 셋째로 국민대만을 기리며 개인적인 소망따위 보다는 이사회와 인정을 기원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호사다마라 큰일일 어려움도 따르지만 불굴의 의지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아늑한 정서를 선물함 이 명분이라 여겨 반월성 위에 종각이 우뚝서는 날 그 종소리를 불사하는 마음가짐이며 가장 큰 일은 일이 끝나면 원래 자기 자

음식집 호텔 휴게소 등이 즐지어 관광업을 반긴다.

특히 충충이 양벌이 있어 마치 수석전시장을 방불케 하며 각종 물고기들과 새들이 손짓한다. 메기, 쏘가리, 참붕어, 버들치, 송사리, 피라미, 뱀장어, 죽데기, 철성장어 등이 노니는 모습은 영평천의 물소리와 어울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뿐만이? 기러기, 청둥오리, 농병아리, 비오리, 삵구기, 꼬꼬리 등 철새들과 꿩, 까치, 짝부리, 배재새, 방울새 등 철새 몇새 텃새들의 화답하는 새소리는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가끔 포천의 여름 피서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온다.

"아, 여름피서지요? 이동계곡이나 풍혈산 유원지 보다 더 좋은 곳 또 어디 있나요?"

필자는 자신있게 권한다. 포천의 명인 양사언 선생 삼학재와 취재 이서구 선생(암문대감), 면암, 박순 등이 즐기시던 명승이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용연서원 추계제향 50여명 참석



동재, 서재 복원 위해 힘 모아야

지난 20일 한음 이덕형, 용주 조경선생을 모신 용연서원에서 추계제향을 올렸다.

이날 제향은 용연서원 포천시부시장과 변진수 포천교육장, 양기성 용연서원 원장과 관내 유림 5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개최됐다.

제향에 앞서 양기성 용연서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재와 서재가 6.25 전쟁 중에 불타 소실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예산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일을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 유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용연서원의 동재는 안반이 글 공부하던 방을 말하고 서재는 중인 이하가 공부하던 서재를 말한다.

1692년 숙종 18년에 용연(龍淵)이라 사액되었고, 조선말 대원군이 모든 서원을 철폐하였지만 이덕형의 공로로 높이 평가하여 철폐되지 않았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 儒家鼻祖直仁宣(유가비조직인선)
유가의 비조이신 공자님께서 인을 천하 배움에 주셨고.
- 丘廟秋祠同祭客(구묘추사동제객)
공묘 추사에 많은 제관이 함께 모였고.
- 追思聖哲門勳效(추시성철문훈효)
성철을 추모하고 문하생은 부지런히 본받아 익히고.
- 不朽經書今愛讀(불후경서금애독)
경서는 오래도록 불후하여 지금까지 만민이 애독하고.

釋奠大祭餘憾 (석전대제여감)

- 後世東方列國傳(후세동방열국전)
인은 후세 동방 여러 나라에 전하였도다.
- 政何正也間顏淵(정하정야간연원)
제자 안연이 정치가 뭐니고 물으니 정직이라 하셨다.
- 教誨後生學習權(교회후생학습권)
후생들을 교화하시니 후생들은 배움을 귀히하리다.
- 五倫實踐息離緣(오륜실천식이緣)
오늘에는 오륜 실천함이 직접 실천하지 않아 탄식하게 되도다.



박동규
전 영복중교 교장
영복노인대학장
포천한시사 회원

초대 詩

알수없고 전될수없어라

무언가 여쭙라 치면
무일~
손으로 휘이 내 짓는다

미움도 선악도
그저
내어 놓으라 한다

알수없는
전될수없는
시공의 시간도 내려 놓으라 한다

무일개...
알수없고 전될수없는 시간
들...



정영옥
주부·소흘읍직동리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3)

‘영평천’과 ‘풍혈산’ 유원지

영평천은 이동면 도평리 백운산에서 근원(根源)하여 서쪽으로 흘러 영평면 풍혈산 북쪽 기슭을 지나 성동리에 이르러 한탄강으로 흐르는데 포천천과 합류(合流)한다.

영평천(永平川)은 길고 평평한 내라고 하지만 필자는 '영원한 평화의 고장의 빛'이라고 하였다더니 독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생각이 난다.

다른 냇물은 몰라도 영평천은 마르는 법이 없다. 사철 맑고 푸른 물이 흐른다.

영평팔경의 대부분이 영평천 냇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평천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냇물인가를 알 수 있어 재

미있다.

금모래, 은모래 반짝이는 금물결의 금수정이나 푸름 옥병풍을 두른 듯 아름다운 암벽의 창육벽은 봉래 양사언 선생과 면암 최익현 선생 박순 대감 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유서 깊은 곳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풍혈산(風穴山)은 유명하다.

풍혈산은 영평천이 북쪽 기슭을 흐른다.

풍혈산 유원지는 무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모르고 쉴 수 있는 유원지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30여년 전, 영평천에서 낚시를 하던 유림객들이 농민이 점심참으로 먹던 순두부가 하도 맛

좋아 얻어 먹은 것이 유래가 되어 요즘은 '패주골(敗走谷)→태봉국의 왕이 패하여 왕건에게 쫓겨가던 골짜기' 순두부가 변질된 이름으로 '패주골 순두부'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모두 풍혈산 유원지의 자랑거리이다.

원래 풍혈산은 바람굴의 산이란 뜻으로 오뉴월에도 찬바람으로 부는 천하제일의 피서지라고 할 수 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름대로 구멍에서 찬바람이 나와(속어나) 6월까지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풍혈산 유원지는 영평천 냇가에 시설이 좋고 운치가 있는